

# 소장 가능한 미술 전시로 대중에게 한발 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월 11~23일 '미술주간' 으로 현대미술 관심높여

“솔직히 일반 대중들은 미술관 갤러리의 차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수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미술을 쉽게 풀어주는 역할,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펼치고 나서고 있다.

‘미술주간’을 타이틀로 대중과 미술의 접점을 좁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작년 11월 시범적으로 진행 미술주간행사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미술을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전시로 진행했다. 젊은 작가들 작품 200여점을 구매해 작품을 전시 관했다. 미술품은 비싸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작품 소장엔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다.

나는 무명작가다 전을 주제로 무명의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한편, 관람객도 작품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

대부분 10만원에 가격이 매겨진 그림들은 90% 이상 팔려나갔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미술주간’은 전국 단위로 펼쳐진다.

오는 10월11~23일 열리는 ‘미술주간’은 국공립미술관 3대 비엔날레와 연계해 현대미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해영 시각예술부장은 “올해는 미술은 삶과 함께 올 큰 주제로 미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함께 하는 미술 축제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폐북을 차용해 ‘미술 좋아요’ 슬로건도 만들었다.

미술 주간이 시작되는 13일간은 국내 대표적인 미술축제들이 동시에 열린다.

10월 12일부터 국내 최대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인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연계, 쏟아진 현대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포문을 연다.

또 서울 광주 부산비엔날레에도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반박이는 커뮤니티를 주제로 서울 외곽과 공동체 미술들에 관한 시민 참여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10월 14일부터 4회 서울시립미술관서 소문본관에서 안민욱 작가 합의를 남치극을 펼치고, 구수현작가서 열시부터 여섯시까지 퍼포먼스를 벌인다. 또 광주· 부산비엔날레 아트투어와 3대 비엔날레가 연대한 포럼도 계획중이다.

한국시립미술관협회와 협력, 전국의 사진작가 좋은 미술관’ 무료관람 할인 혜택 미술관 등을 소개하는 등 관객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 관객 참여를 유도하고 미술관 홍보도 포함 예정이다. 또 ‘올해의 미술도시’로 대구를 선정, 대구 문화재단 주관으로 예술가 작업실 탐방 등도 열린다. 미술주간에 협력한 미술관

은 관람료가 대부분 무료거나 50% 할인 혜택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주간 개막에 맞춰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딱딱한 배열식 정보가 아닌,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한 친절한 안내서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10월 11일 개막식 오후 4시부터 니콜라스 바움 뉴욕퍼블릭아트퍼드 디렉터 초청강연이 열린다. 일상속 현대미술의 긍정적 이미지와 확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정해영 시각예술 부장은 “그동안 도슨트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여전히 대중과 유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미술주간’이 대중이 미술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미술관과 미술의 플랫폼 역할로 작용했으면 한다”며 10월 펼쳐는 미술주간 프로그램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뉴스시스



유유열 작가의 장구춤

## 2016한일미술교류전 in 전주' 오늘 개최

2016한일미술교류전 in 전주'가 오는 9일~15일 전북예술회관 차오름과 미러네임에서 열린다.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지난해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열린 2015한일미술교류전 in 전주에 이은 전시로, 양국은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 및 유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전시에는 강용면, 김병철, 김성덕, 김성욱, 남성희, 류재현, 문연남, 배병희, 안현성, 안현진, 오병기, 유병희, 유유열, 이동형, 이병복, 이병로, 이재승, 이정음, 이주리, 이철규, 이흥규, 이희준, 장영애, 장현경, 정유리, 정하람, 조현, 조현동, 천범진, 탁소연, 한수연, 한국작가와 토요하라 민푸를 비롯한 25명의 일본대표 작가들이 참여한다.

교류전에는 회화, 공예, 조각, 서도 등이 전시되며, 전시기간 중에는 일본 무용과 일본 전통공예 중 하나인 달마색칠하기 및 워크샵, 서도, 일본차, 종이 접기 등 행사가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오후지 히로코의 '다카사고-호트라진 빛꽃'과 송수아의 '쇠뿔'을 선보인다.

문연남 작가는 "한일미술교류전이 양국 간 서로 마음을 열어가고 공존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하라 민푸 일본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국은 문화·역사·습관을 이해하고, 한층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행사는 한일교류전 전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 진안군,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오픈일 오늘, 오후 5시, 문의 284-4445. /정해은 기자



'무작 춤을 만들다'는 한국적인 색채 비중을 높여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 정읍무용축제, '무작, 춤을 만들다'

### 오늘 오후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제5회 정읍무용축제가 8일 오후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이 행사는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보훈무용예술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최하고 정읍예술회관 전북발레시어터의 주관 정읍시의 후원으로 열린다

무대에는 정읍사 예술회관과 전북발레시어터가 공동기획하고 제작한 <무작, 춤을 만들다> 공연이 오른다. 이는 창작무용과 전통무용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적인 색채 비중을 높여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박정곤 (사)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현대무용 작품

'자극에 반응하다' 김현미(한국무용협회 정읍시지부장)의 6명, '살풀이춤' 김덕숙(장흥가무악전국대전 대동령상), '상상'의 류영수(한밭전국국악대회 대동령상)의 24명, '태평무'의 양민아(대구국악제 대동령상), '속대머리'의 정복발레시어터 박진서, 김동우의 창작발레와 소리 최지디(국가무형문화제 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보이지 않는 선'의 홍자연(사)보훈예술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의 무대로 꾸며진다.

염광욱 전북발레시어터 단장은 "어르신들부터 어린 관객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꾸며보았으며,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기게 해 부족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초대이며, 입장권 선착순이다. 공연문의는 010-3563-1775. /정해은기자

## '정읍, 대륙을 품다' 국제미술교류전 열려

### 정읍시립미술관, 12일부터 한달간

정읍시립미술관이 국제미술교류전을 갖는다.

시는 중국 서주시 평성화파를 초청, 정읍, 대륙을 품다를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서주시 평성화파 68명작가의 작품 64점과 정읍지역 작가 25명의 작품 40점 등 총 10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중국화 예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이기염(1907~1989) 작품인 '애우서주'와 '이강산 수 천하주', '목우도'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섬세한 동양예술과 서양화와의 강렬한 융합을 통해 서정 넘치면서도 추상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주덕근(1920~2014)의 '동경소 화상', '시원한 세계', '신비의 심경'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와 관련, 서주시 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곽영당과 이기염예술관부관장 호지국 등 6명의 중국 서주시 미술협회 인사들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읍을 방문,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0월 강소성 서주시와 정읍시의 우호도시 결연 15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기염미술관에서 양 시간 미술교류전이 개최되면서 시작됐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교류전이 중국의 평성화파 작품을 감상하고 서주시 미술 역사를 이해하는 물론 정읍미술을 서주시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등을 통해 양



미술교류전 전시 풍경

지역 예술인은 물론 도시 간 우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추석날 15일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063.539-64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문체부, 추경 등 총 1400억 풀어 관광사업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특별용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용자는 기존 예정안 200억원을 포함한 운영자금 600억원, 시설자금 800억원 등 총 1400억원(추경 1200억원) 규모다. 특별용자 지침은 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문체부는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용자 신청 한도를 대폭 늘리고, 올해 하반기 정기 용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안관광 활성화 관광 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해 마리나, 호텔 리츠(RTTS) 등을 용자 대상에 추가했다. 운영자금은 27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와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받는다.

용자 대상 사업체는 10월6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8일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자금은 10월6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과 5개 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8일>

**▷쥐띠**  
46년생: 재물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  
60년생: 늦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72년생: 작은 일은 가능하나 큰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보면

**▷소띠**  
49년생: 매사 큰 움직임을 삼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운이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을에 시달리다 난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급격히 행운을 삼가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든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몰해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뜻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집착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

**▷말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해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물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대처필요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통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

**▷원숭이띠**  
55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이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라.

**▷개띠**  
48년생: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심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59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58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공하게 행동하되가는 일이 들어질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